

청동기시대 장제의 지역성 연구*

- 인골자료를 중심으로 -

신 석 원**

〈목 차〉

- I. 머리말
- II. 인골 출토 유적의 검토
- III. 청동기시대 장제의 분석
- IV. 청동기시대 장제의 지역성
- V. 맺음말

국문요약

청동기시대의 장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골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편적이고 부수적으로 접근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유구에서 출토한 126개체의 인골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한국(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장제의 지역성에 대해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장제의 제요소 중 먼저 피장자의 인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장방법 및 절차, 두향, 자세를 분류하였다. 그 결과 매장방법 및 절차에서 모두 6개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향을 8개 방위로 구분하고, 자세를 신전장과 굴장으로 나누었다.

분류한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 수계별로 구분한 유역에 따라 분석을 시도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과 지역간 구분되는 차별적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청동기시대의 사회상을 지역성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지역과 관계없이 매장방법에서는 매장과 화장이 주로 성행하였고, 두향과 관련하여서는 해가 지는 서쪽 방향을 기피하는 관념이 존재했음을 알 수

* 이 논문은 필자(2016)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재)삼한문화재연구원

있었다. 한편 지역적으로는 특히 청동기시대 후기에 한정했을 때, 송국리문화권과 그 외 지역이 매장방법 및 절차상의 유형에서 서로 구분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것은 화장이면서 일차장인 경우 각각 화장1a형과 화장1b형으로 상이하며, 소형 매장주체부에 행해진 이차장의 경우 각각 매장2형과 화장2형으로 대비되어 나타난다. 또한 양 지역의 내부에서도 수계별로 구분한 유역에 따라 매장방법과 화장의 비율이나 특수한 매장방법의 유무 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청동기시대, 장제, 지역성, 인골, 매장방법, 매장절차, 두향, 자세

I. 머리말

한국 고고학에서 청동기시대 무덤에 대한 연구는 묘제나 출토된 유물에 관심이 집중되어온 경향이 있다. 출토 유물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부장품으로서 피장자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보다는 형식의 분류 및 편년에 치중되어왔다. 물론 과거에도 인골을 중심 자료로 삼아 청동기시대의 장제에 대해 접근한 연구가 없지는 않았지만, 당시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있을 만큼 인골이 출토된 사례가 충분하지 못하여 연구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청동기시대의 인골도 상당한 양이 축적된 상태여서, 이를 토대로 청동기시대 장제에 대한 연구의 시도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장제란 장례의 제도라는 의미이며, 상장제 중에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절차와 관련된 제도이다.¹⁾ 장제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김동숙이 정리한 바 있다.²⁾ 여기서 묘제는 분묘 축조와 관련된 여러 요소들이, 장제는 주검의 처리 방식과 죽음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요소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대상이 인골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장제의 요소들 중 두향이나 매장 방식 등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³⁾

이에 대해 청동기시대 한국(남한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된 성과를 살펴보면, 199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두향과 관련한 관념상의 문제나 매장주체부의 크기를 통해서 매장 방식을 유추하는 경향이⁴⁾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이후에 접어들면서 변화를 맞이하여, 본격적으로 인골을 활용한 연구⁵⁾가 이루어지기 시작하

1)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사전』, 2001.

2) 묘제 : 매장부 구조, 분구 규모, 묘역의 시설물 등

장제 : 입지, 두향, 매장 방식, 유물 부장 방식, 단장·합장 등

김동숙, 『원시와 고대의 장송의례 연구』, 『무덤연구의 새로운 시각』, 한국고고학회, 2008, 138~140쪽.

3) 단장·합장의 경우 청동기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단장이 행해지며, 합장된 사례가 일부 존재하나 극소수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4) 김원룡, 『한국의 고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 이윤조, 『한국 고인돌사회와 그 의식·발굴 결과를 통한 복원해석의 한 시도-』, 『동방학지』23·2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0 ; 임세권, 『한 반도 고인돌의 종합적 검토』, 『백산학보』20, 백산학회, 1976 ; 지건길, 『지석묘사회의 복원에 관한 일고찰-축조기술과 장제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13·14, 이화여자대학교 사학연구소, 1983.

5) 유태용, 『인골분석을 통한 지석묘사회의 계층성 연구』, 『경기사학』7, 경기사학회, 2003 ; 이영문, 『전남지방 지석묘 사회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지석묘 사회의 장제에 대한 일고-전남 지석묘의 구조와 유물을 중심으로』,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 『한국 지석묘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2002.

었다. 하지만 당시까지 출토된 인골의 수량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추론적인 경향이 강한 편이었다.

이후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연구의 방향이 좀 더 다양해지는데, 어느 정도 지역을 한정하여 기존 연구경향처럼 매장주체부의 크기를 통해 매장 방식을 유추⁶⁾하거나, 인골을 중심으로 해당 유구 또는 유적의 범주에서 연구⁷⁾, 또는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장비이나 시설에 주목하는 경향⁸⁾ 등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사 검토를 통해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연구가 소수의 인골을 근거로 하거나 아예 인골을 근거로 하지 않은 채 두향과 매장 방식 등을 추론하여 당시의 장제에 접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동기시대 무덤의 연구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장제와 관련한 부분은 단편적이거나 부수적으로만 다루는 경향이 강한 편이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방법에 있다기보다는 자료의 불충분에 기인하는 바가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발굴된 인골의 절대적인 수량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그간 활발한 발굴조사를 통해 상당한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이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축적된 한국(남한지역)의 청동기시대 인골을 바탕으로 매장방법 및 절차, 두향, 자세 등 세 가지 요소의 검토를 통해 당시의 장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분석에 있어서는 인골이 출토된 각 유적들을 수계별로 구분하여 지역적인 성격에 대해 파악한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지역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과 지역간 상이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본고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유구의 명칭 문제에 대해서

6) 김규호, 『강원지역의 고인돌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김동규 외, 『청동기시대 서부경남지역의 석관 연구』, 『문물연구』26,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14 ; 우장문, 『경기지역의 고인돌 문화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7) 김재현, 『부산-경남지역 고대 장송문화의 정체성과 접변양상』, 『석당논총』37,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6 ; 平郡達哉, 『무덤자료로 본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사회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하대룡, 『인골 분석을 통한 장례 방식의 검토-불교식 화장 이전의 선사-고대 화장 문화의 특성-』, 『농업의 고고학』, 한국고고학회, 2012.

8) 김동규 외, 『청동기시대 서부경남지역의 석관 연구』, 『문물연구』26,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14 ; 유병록, 『수혈건물 폐기행위 연구 1-가옥장-』,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창설20주년 기념논문집』,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창설20주년 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10 ; 이수홍, 『검단리유형의 무덤에 대한 연구』, 『고고광장』8, 부산고고학연구회, 2011 ;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영문, 『호남지역 지석묘의 형식과 구조에 대한 몇가지 문제-가매장시설의 기능과 관련하여』, 『한국청동기학보』8, 한국청동기학회, 2011.

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혼란을 피하기 위해 보고서의 명칭을 그대로 따랐음을 밝혀둔다.

II. 인골 출토 유적의 검토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인골은 총 50개소 유적의 119기 유구에서 출토된 126개체에 해당하며, 각 유적의 위치는 <도면 1>과 같다. 대부분의 인골은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인 지석묘, 석관묘 등에 단장으로 매장된 양상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무덤이 아닌 유구에 매장되는 경우나, 한 유구에 여러 개체를 매장한 경우도 확인된다.

한편 인골이 출토된 유적은 거의 대부분이 강이나 하천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이에 지역 구분은 하천의 수계를 기준으로 하여 한강, 금강, 섬진강·영산강, 형산강, 낙동강·남강의 5개 유역으로 나누었다.⁹⁾ 각 수계별 유적의 현황은 <표 1>로 요약할 수 있다.

다음은 이상에서 살펴본 50개소 유적의 시기에 대해 간단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검토대상 중에는 행정구역상 위치는 같으나 따로 보고된 것도 일부 있다. 하지만 검토 결과 서로 시기가 상이한 경우가 없으므로 행정구역상의 위치에 따라 통합하여 시기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잔존상태가 불량하거나 출토맥락이 불분명하여 매장방법 및 절차, 두향, 자세 등의 분류가 어려운 일부 개체에 대해서는 시기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고의 연구목적이 편년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기 검토에 있어서는 각 유적 보고자들의 견해를 우선적으로 따랐다. 또한 부장품 중 가장 많은 출토 빈도를 보이는 것이 마제석검과 마제석촉인 점에서 손준호의 연구¹⁰⁾를 참고하여 보완하였으며, 시기를 크게 전기와 후기로 양분하여 구분한 것도 여기서 차용하였다.

⁹⁾ 안성 만정리 신기유적과 평택 토진리유적은 안성천에 접해있어 한강과는 수계를 달리하지만,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한강유역에 포함하였다.

¹⁰⁾ 손준호, 『청동기시대 마제석기 연구』, 서경문화사, 2006.



1.춘천 천전리	13.정선 아우라지	26.경주 덕천리	39.진주 대평리
2.춘천 발산리	14.영월 연당 피난굴	27.경주 천군동	(문화재연구소)
3.춘천 신매리	15.제천 황석리(중박)	28.경주 석장동	40.진주 대평리 어은1
4.춘천 중도(중박)	16.제천 황석리B	29.포항 호동	41.진주 대평리 옥방1
5.춘천 중도(강원대박)	17.제천 양평리D	30.김천 송죽리	42.진주 대평리 옥방4
6.홍천 외삼포리	18.충주 하천리D	31.대구 신서동	43.진주 대평리 옥방5
7.양평 상자포리(중박)	19.괴산 사창리	32.대구 매호동	44.진주 대평리 옥방7
8.양평 상자포리 (이화여대)	20.보은 부수리	33.대구 동천동	45.사천 본촌리
9.양평 양덕리	21.진안 삼락리 안자동	34.대구 월성동	46.진주 가호동
10.광주 역동	22.진안 삼락리 구곡	35.대구 진천동	47.진주 충천리
11.안성 만정리 신기	23.나주 랑동	36.달성 평촌리	48.마산 진동
12.평택 토진리	24.장흥 송정리	37.창녕 사창리	49.창원 덕천리
	25.순천 신평리	38.산청 강누리	50.김해 내동

도면 1. 대상유적의 위치

표 1. 대상유적의 현황

유역	유적명	유구명	매장주체부				부장품		참고문헌	
			구조	길이	너비	깊이	매장주체부 내부	매장주체부 외부		
한강유역	춘천 천진리	C호 적석층	석관형	120	70	40	·	무문토기편	국립중앙박물관 1967	
		5호 지석묘	석관형	75	60	14	·	석검, 석촉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춘천 신매리	I 군 2호 지석묘	석관형?	불명	불명	불명	·	무문토기편	한림대학교박물관 1986	
		춘천 중도(중박)	I 호 고인돌	석관형	50	25	미보고	·	석촉	국립중앙박물관 1983
	춘천 중도(강원대박)	고인돌	석관형	101	72	50	·	무문토기편	강원대학교박물관 1984	
		홍천 외삼포리	석관묘	석관형	220	90	134	·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양평 상지포리(중박)	제3지구 제1호 지석묘	석관형	120	50	30	·	무문토기편, 석부	국립중앙박물관 1974	
		4호 지석묘	석관형	160	44	불명	·	·	이화여자대학교 1974	
	양평 양덕리	고인돌	석관형?	160	50	불명	·	·	·	
		광주 역동	석관묘	석관형	190	90	미보고	·	·	·
	안성 만정리 신기	3호 석관묘	석관형	83	58	40	·	·	·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2
		4호 석관묘	석관형	55.5	54	20	·	·	·	·
	평택 토진리	1호 석관묘	석관형	45	19	미보고	·	·	·	·
		1호 적석유구	수혈	66	61	17	·	·	·	·
	정신 아우리지	1호 지석묘	석관형	불명	불명	불명	·	·	·	·
		2호 지석묘	석관형	불명	불명	불명	·	·	·	·
		1호 석관묘	석관형	160	65	85	·	·	·	·

유역	유적명	유구명	매장주체부				부장품		참고문헌
			구조	길이	너비	깊이	매장주체부 내부	매장주체부 외부	
한강유역	영월 연당 피난굴	2굴 청동기시대 무덤	수혈	200	120	60	적색마연토기, 무문토기, 석검, 석촉, 석기, 방추차 등	.	연세대학교박물관 2009
	제천 황석리(중박)	제13호 지석묘	석관형?	185	60	30	석검	.	국립중앙박물관 1967
		총6호 고인돌	석관형?	195	60	30	.	.	
		총7호 고인돌	석관형?	160	40	25	옥	.	충북대학교 1984
	제천 황석리 B지구	총13호 고인돌	석관형?	104	28	25	.	.	
		총17호 고인돌	석관형?	181	45	25	석검	.	
	제천 양평리 D지구	1호 지석묘	불명	불명	불명	불명	.	.	서울대학교 1984
	충주 하천리 D지구	1호 석곽	석곽형?	155	44	30	.	.	
		2호 석곽	석곽형?	137	45	33	석도	.	한양대학교 1984
	괴산 사창리	다-5지점 지석묘	석곽형	146	51	25	무문토기편, 석검, 석촉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2
		라-3지점 지석묘	석곽형	163	52	52	무문토기편, 석촉	.	
	보은 부수리	1호 석관묘	석관형	168	70	44	석촉	적색마연호	중앙문화재연구원 2004
2호 지석묘		석관형	160	58	70	석부	.		
진안 삼락리 안자동	3호 지석묘	석곽형	불명	불명	불명	적색마연호	석촉	국립전주박물관 2001	
	5-2호 지석묘	석곽형	155	50	25	석검	.		
진안 삼락리 구곡	A지역 1-1호 지석묘	석관형	174	68	32	석촉	적색마연토기편, 무문토기편, 석검, 석기, 토제품		
	A지역 1-2호 지석묘	석관형	162	62	21	.	적색마연토기편, 무문토기편	국립전주박물관 2001	

구역	유적명	유구명	매장주체부				부장품		참고문헌	
			구조	길이	너비	깊이	매장주체부 내부	매장주체부 외부		
금강유역	진안 삼락리 구곡	A지역 2-2호 지석묘	석관형	(130)	60	28	·	무문토기편	국립전주박물관 2001	
		A지역 5-3호 지석묘	혼축형	166	50	32	·	적색미연토기편, 무문토기편, 석축		
		C지역 2호 지석묘	석관형	158	40	38	석좌	석축		
		C지역 5호 지석묘	석관형	150	58	44	·	무문토기편, 석기		
섬진강·영산강유역	나주 랑동	1호 묘실	석관형	154	60	52	석검	무문토기편	전남문화재연구원 2006	
		장흥 송정리	석관형	176	53	48	적색미연토기편, 석축, 석도, 방추차	석축	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순천 신평리	석관형	155	45	35	무문토기편, 석검	·	전남대학교박물관 1987	
평산강유역	경주 덕천리	1호 석관묘	석관형?	80	40	미보고	적색미연토기편, 석검, 석축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8	
		경주 친군동	주거지	674	364	44	공렬문토기, 적색미연토기, 무문토기, 석부, 석축, 석도, 석기 등	·	성림문화재연구원 2010	
		경주 석장동	회장묘	수혈	216	(175)	10	·	·	계림문화재연구원 2012
		포항 호동	29호 주거지	주거지	616	(286)	36	무문토기편, 석좌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유역	유적명	유구명	매장주체부			부장품			참고문헌
			구조	길이	너비	깊이	매장주체부 내부	매장주체부 외부	
낙동강 유역	김천 송죽리	제1호 지석묘	석곽형	170	40	40	동기	적색미연토기편, 무문토기편, 석부, 석축, 석기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2007
		제4호 지석묘	석곽형	165	60	55	적색미연호, 적색미연발, 석축	짜개, 지석편	
		제15호 지석묘	석곽형 (180)	(130)	불명	.	석부, 석축	.	
		제16호 지석묘	수혈	130	100	40	.	.	
		B-4구역 1호 석관묘	석곽형?	(107)	53	8	석검, 석축	.	
		석관묘 1호묘	석곽형	135	40	30	.	.	
	대구 동천동	석관묘 1호	석곽형	130	32	30	석축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2
		석관묘 2호	석곽형	90	40	50	.	적색미연호	
		4호 석관묘	석곽형 (170)	(170)	60	40	.	.	
	대구 진천동	3B호 석관	석곽형	110	47	40	적색미연토기편, 무문토기편	.	세종문화재연구원 2014 강인구 1980
		1호 석관묘	혼축형	110	40	38	.	.	
		3호 석관묘	석곽형	167	49	43	적색미연토기편, 석검, 석축	.	
		6호 석관묘	혼축형 (120)	(120)	52	10	.	.	
		7호 석관묘	혼축형	97	26	15	.	.	
		11호 석관묘	석곽형? (140)	(140)	58	50	석축	.	
달성 평촌리	12호 석관묘	석곽형?	(125)	45	38	석검	석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0	
	13호 석관묘	석곽형?	(135)	35	35	석검	석도		
	14호 석관묘	석곽형	232	70	53	.	석기		
	15호 석관묘	혼축형	165	50	35	.	.		

구역	유적명	유구명	매장주체부			부장품			참고문헌
			구조	길이	너비	깊이	매장주체부 내부	매장주체부 외부	
낙동강 · 남강유역	달성 평촌리	16호 석관묘	석관형	192	70	33	석검, 석촉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0
		17호 석관묘	혼축형	180	63	46	석검, 석촉	.	
		19호 석관묘	석관형	72	21	31	.	.	
		20호 석관묘	혼축형	150	52	45	석검, 석촉	.	
		21호 석관묘	석관형	152	58	35	옥	.	
		22호 석관묘	석관형	145	42	43	.	.	
		23호 석관묘	석관형?	(133)	45	45	석검, 석촉	.	
		25호 석관묘	석관형	155	45	38	석검, 석촉	무문토기편, 점토대토기편	
		27호 석관묘	불명	185	45	5	석촉	.	
		28호 석관묘	석관형	175	60	50	석검, 석촉	.	
		9호 매장유구	석관형	155	35	35	석검, 석촉	.	
		10호 매장유구	석관형	80	21	15	석검	.	
12호 매장유구	석관형	123	25	25	.	무문토기편			
진주 대평리 (문화재연구소)	진주 대평리 어은리지구	석관묘 1호	석관형	(105)	50	42	적색미연호, 석검	석촉	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2
		어은 2호 지석묘 동편석관	석관형	164	40	40	.	.	문화재연구소 1994
진주 대평리 어은리지구	진주 대평리 옥방리지구	어은 2호 지석묘 남편석관	석관형	144	36	50	석검, 석촉	.	김재현 2002 이상길 1999
		4호 석관묘	석관형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경남고고학연구소 2002 이수홍 1999
		31호 석관묘	석관형	86	30	27	.	.	
		493호 석관묘	석관형	130	33	28	적색미연토기	.	

구역	유적명	유구명	매장주체부				매장주체부 내부	매장주체부 외부	참고문헌	
			매장주체부		너비	깊이				
			구조	길이						
남동강 · 남강유역	진주 대평리 옥방4지구	제4호 석관묘	석관형	128	37	20	·	·	김재현 2002 동아대학교박물관 1999 동의대학교박물관 2008	
		제5호 석관묘	석관형	163	40	41	적색마연호, 석검, 석촉	·		
		제6호 석관묘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제7호 석관묘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제10호 석관묘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제13호 석관묘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제16호 석관묘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제26호 석관묘	석관형	171	47	미보고	석검	·		·
		A-1호 석관묘	석관형	130	45	48	·	·		·
		진주 대평리 옥방7지구	가-17호 석관묘	석관형	168	70	43	적색마연토기		·
가-19호 석관묘	석관형		75	30	30	적색마연토기, 옥	·			
가-20호 석관묘	석관형		76	49	28	적색마연토기, 옥	·			
사천 본촌리	가1호 석관묘	석관형	150	60	40	적색마연호, 석검신부	석검분부, 석검병부, 석촉	경상대학교박물관 2011 김재현 2002		
	가2호 석관묘	석관형	161	55	48	석촉	석검, 석촉			
진주 가호동	1호 묘	석관형	184	38	37	청동천, 석검	·	동서문화연구원 2011		
	4호 묘	불명	(168)	(110)	불명	·	·			
	5호 묘	석관형	165	40	25	토제품	·			
	7호 묘	석관형	77	25	23	·	·			
	8호 묘	석관형	148	35	25	석검	·			
	9호 묘	석관형	98	27	22	옥	·			
	11호 묘	석관형	165	32	28	석검	·			
15호 묘	석관형	98	32	20	·	·				

유역	유적명	유구명	매장주체부			부장품			참고문헌
			구조	길이	너비	깊이	매장주체부 내부	매장주체부 외부	
남동강 · 남강유역	진주 기호동	17호 묘	석관형	68	27	17	·	·	동서문물연구원 2011
		18호 묘	석관형	63	19	17	옥	·	
		19호 묘	석관형	110	35	20	·	·	
		20호 묘	석관형	56	23	17	옥	·	
		25호 묘	석관형	152	35	28	석검	·	
		27호 묘	석관형	162	35	22	석촉	·	
		36호 묘	석관형	48	20	10	·	석도	
		III-1호 석관묘	석관형	145	38	25	석검	·	
	미산 진동	묘역시지석묘 K호	석관형	150	33	50	·	석검, 석촉	우리문화재연구원 2009a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8
		석관묘 15호	석관형	97	26	39	석촉	석촉	
창원 덕천리	11호 묘	석관형	240	65	70	적색미연호, 무문토기편, 석검, 석촉	·	경남대학교박물관 2013	
	16호 묘	석관형	230	70	75	동검, 적색미연호, 석검	·		
	17호 묘	석관형	205	50	55	석부	적색미연호, 석검, 석촉		
김해 내동	제3호 큰돌무덤	혼축형	225	95	90	무문토기편	적색미연호, 무문토기편, 돌대문토기편	동의대학교박물관 2003	

각 유적의 시기는 대부분의 경우 해당 유적이 아닌 인골이 출토된 유구에 한정된 것이다.¹¹⁾ 다만, 출토된 유물이 전무하거나 일부 존재하더라도 시기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유적의 중심 시기를 표시하였다.

이렇게 볼 때 각 유적별 시기는 <표 2>와 같이 정리되며, 대상유적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송국리문화를 지표로 하는 청동기시대 후기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대상유적의 시기

유역	유적	시기	
		전기	후기
한강유역	광주 역동		
	정선 아우리지		
	홍천 외삼포리		
	괴산 사창리		
	춘천 천전리		
	춘천 발산리		
	춘천 중도		
	양평 삼자포리		
	안성 만정리		
	평택 토진리		
	제천 황석리		
충주 하천리			
금강유역	진안 삼락리		
섬진강·영산강유역	나주 량동		
	장흥 송정리		
	순천 신평리		
형산강유역	경주 덕천리		
	경주 천군동		
	포항 호동		
낙동강·남강유역	경주 석장동		
	김천 송죽리		
	대구 매호동		
	대구 신서동		
	대구 동천동		
	대구 월성동		
	대구 진천동		
	달성 평촌리		
	창녕 사창리		
	산청 강누리		
	진주 대평리		
	사천 본촌리		
	진주 가호동		
	진주 중천리		
	마산 진동		
	창원 덕천리		
	김해 내동		

¹¹⁾ 같은 유적이라도 유구마다 시기가 상이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정선 아우리지유적의 경우 1호, 2호 지석묘는 후기, 1호 석곽묘는 전기에 해당하여 서로 시기가 다르다. 하지만 전자는 분류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 시기 검토에서 제외하였고, 해당 유적은 1호 석곽묘의 시기인 전기로만 표시하였다.

Ⅲ. 청동기시대 장제의 분석

분석에 있어서 출토된 인골들에 대해 살펴볼 주요 요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장방법 및 절차, 두향, 자세 등 세 가지이다. 여기서는 우선 각 요소들을 검토하여 분류한 후, 이것들이 수계별로 구분한 지역과 관련하여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1. 요소별 분류

1) 매장방법 및 절차

(1) 매장방법

매장방법은 피장자를 땅 속에 묻는 토장이 가장 기본적이며, 이 밖에 불에 태우는 화장, 나무 등에 올려 육탈시키는 풍장, 물속에 넣는 수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¹²⁾ 본고의 연구대상인 청동기시대 인골은 지석묘, 석관묘 등에 매장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드물게 일반적인 매장유구가 아닌 주거지나 수혈 등에 매장된 것도 확인된다.

이 중 화장된 인골의 경우는 출토맥락이나 상태에서 어느정도 구분이 가능하지만, 다른 인골들은 매장방법을 판단하기가 다소 애매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분류에 있어서는 화장된 인골들은 ‘화장’으로 하고, 화장이 아닌 인골들은 다양한 매장방법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지 화장과 구분하기 위해 ‘매장’으로만 지칭하고자 하며, 이 두 가지로만 구분한다.

한편 화장의 경우 형질분석을 통해 화장된 것으로 분명히 밝혀진 것들도 있으나, 인골과 목탄이 함께 출토되어 정황상 화장으로 추정되지만 단정하기 힘든 것들도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진안 삼락리 구곡유적의 3개체(A지역 1-1호, 1-2호, 5-3호 지석묘)와 장흥 송정리유적(48호 지석묘)의 1개체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기술된 출토 정황상 화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화장으로 분류하였고, 나머지¹³⁾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해 불명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화장은 인골이 출토된 해당 유구 내에서 화장이 행해진 경우 세 가지로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우선 석곽형이나 석관형 등의 매장주체부를 갖는 것

¹²⁾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사전』, 2001.

¹³⁾ 춘천 중도유적(강원대학교박물관)의 고인돌, 양평 상자포리유적(이화여자대학교)의 4호 지석묘, 창원 덕천리유적의 17호 묘 등에서 출토한 3개체가 해당된다.

에 한하여, 매장주체부를 먼저 설치한 후 피장자를 안치하고 화장하는 방법과, 묘광을 굴착하여 피장자를 안치하고 화장을 행한 뒤 매장주체부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 인골은 공정상 매장주체부의 벽석 아래를 포함한 묘광 전체에서 확인된다.

이 외에 통상 매장유구로 판단할 수 없는 유구에서 화장하는 방법도 있다. 많지 않지만 다수의 피장자를 주거지 내에 안치하여 화장하는 경우나 방형의 큰 수혈을 굴착한 후 안치하여 화장하는 경우가 있다.

(2) 매장절차

매장절차는 피장자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의 횟수에 따라 일차장과 이차장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이를 구분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 바로 ‘소형’의 매장주체부이다.

주지하다시피 청동기시대의 매장유구에서는 화장된 것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직·간접적¹⁴⁾으로 이차장의 사례가 알려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즉,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출토된 대다수의 인골은 사실상 일차장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가 발견되고 있는 ‘소형’의 매장주체부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 도저히 성인의 일차장이 이루어질 수 없는 크기이다. 이들에 대해 기존의 연구자들은 유·소아의 매장, 이차장, 화장 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각각에 대해 매장주체부의 크기를 제시한 경우도 있다(표 3).

표 3. 기존 연구자별 매장주체부 크기에 따른 매장방법 추정(단위 : cm)

임세권 (1976)	길이 150이상 길이 100이하	: 신전장 : 굴장, 세골장
지건길 (1983)	길이 160이상 길이 100미만 길이 50미만	: 성인 신전장 : 성인 굴장 불가능 : 아동 굴장 불가능(세골장 등 이차장)
이영문 (1993, 1998, 2002)	160이상×40이상 110~160×40~45 100내외×50이상 150이하×40이하 150이상×20~30	: 신전장 : 굴장 : 굴장 : 유아 신전장, 세골장 : 세골장
김승욱 (2001)	송국리형 묘제 길이 110미만	: 굴장 : 유·소아
김동규 외 (2014)	길이 81~100 길이 61~80 길이 60이하	: 성인 굴장, 유·소아 : 유·소아, 이차장 : 이차장, 화장

14) 직접적인 것은 인골 각 부위의 배치상태를 통해 이차장임을 알 수 있는 경우이고, 간접적인 것은 인골 각 부위의 배치상태에서 판단이 불가능한 것 중 매장주체부의 크기와 인골의 연령상 일차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다.

임세권¹⁵⁾과 지건길¹⁶⁾은 특별한 기준 없이 상식선에서 매장주체부의 크기에 따라 매장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영문¹⁷⁾은 당시까지 확인된 인골 전체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으며, 무엇보다 기존 연구들과 다르게 매장주체부의 단축 길이까지 고려하고 있어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굴장의 경우 슬관 절이 위로 향하게 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매장주체부의 깊이 또한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한편 김승옥¹⁸⁾의 경우 송국리형 묘제에 한해서 매장방법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근거로 역사시대에 해당하는 김해 예안리유적에서 출토된 인골들의 추정 신장과 함께 청동기시대의 일부 인골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대인의 신장에 대한 자료와 지금까지 확인된 유·소아에 대한 매장주체부의 크기 등을 근거로 매장방법을 제시하여 나름의 기준을 세운 연구¹⁹⁾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인용한 근거 자료에 이미 오류²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이러한 ‘소형’의 매장주체부에 유·소아가 매장되었거나 화장된 것은 확인된 사례가 있지만, 성인의 매장이면서 이차장이 이루어진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없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부 연구자들은 매장주체부의 크기만으로 유·소아의 매장, 화장, 이차장 등을 추정해왔다.

여기서 일단 ‘소형’의 개념부터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통상 ‘소형’이라 함은 단지 일반적인 성인을 기준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매장이 불가능한 크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피장자가 유·소아일 경우 이것은 ‘소형’이 아닌 피장자에게 알맞은 크기가 될 수 있다. 즉, 유·소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소형’이 아닌 것이 된다.

이런 이유로 ‘소형’의 매장주체부를 가진 유구와 유·소아묘는 엄밀히 구분되어야 하며, ‘소형’의 매장주체부를 가진 유구에서 행해진 매장방법 및 절차는 일

15) 임세권, 『한 반도 고인들의 종합적 검토』, 『백산학보』20, 백산학회, 1976.

16) 지건길, 『지석묘사회의 복원에 관한 일고찰-축조기술과 장제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13·14, 이화여자대학교 사학연구소, 1983.

17) 이영문, 『전남지방 지석묘 사회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지석묘 사회의 장제에 대한 일고-전남 지석묘의 구조와 유물을 중심으로』,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 『한국 지석묘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2002.

18) 김승옥, 『금강유역 송국리형 묘제의 연구-석관묘·석개토광묘·옹관묘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45, 한국고고학회, 2001.

19) 김동규 외, 『청동기시대 서부경남지역의 석관 연구』, 『문물연구』26,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14.

20) 유·소아묘로 보고 있는 것 중 제천 황석리유적 B지구 층13호 고인돌에서 출토된 인골은 분석을 통해 연령이 판정된 것이 아니라 매장주체부의 크기에서 보고자가 추정할 것일 뿐이다.

21) 미리 밝혀두자면 본고의 연구대상 인골 중 1개체가 이차장된 것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반적인 매장에 의한 이차장과 화장에 의한 이차장으로 구분하여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²²⁾

정리하자면, ‘소형’의 매장주체부는 성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장되기 힘든 크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기준은 성인이 정상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매장주체부 크기의 최소값보다 작아야 할 것이다.

앞서 이영문²³⁾의 연구에서 매장주체부의 장·단축 길이만 고려한 것에 대해 필자는 깊이도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깊이까지 고려할 경우 매장주체부 내부의 3차원적인 공간과 함께 피장자의 자세에 따른 입체적 판단이 필요한데, 이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매장주체부의 공간적 크기를 통해 매장방법 및 절차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일차장과 이차장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장주체부의 장축 길이만을 기준으로 삼아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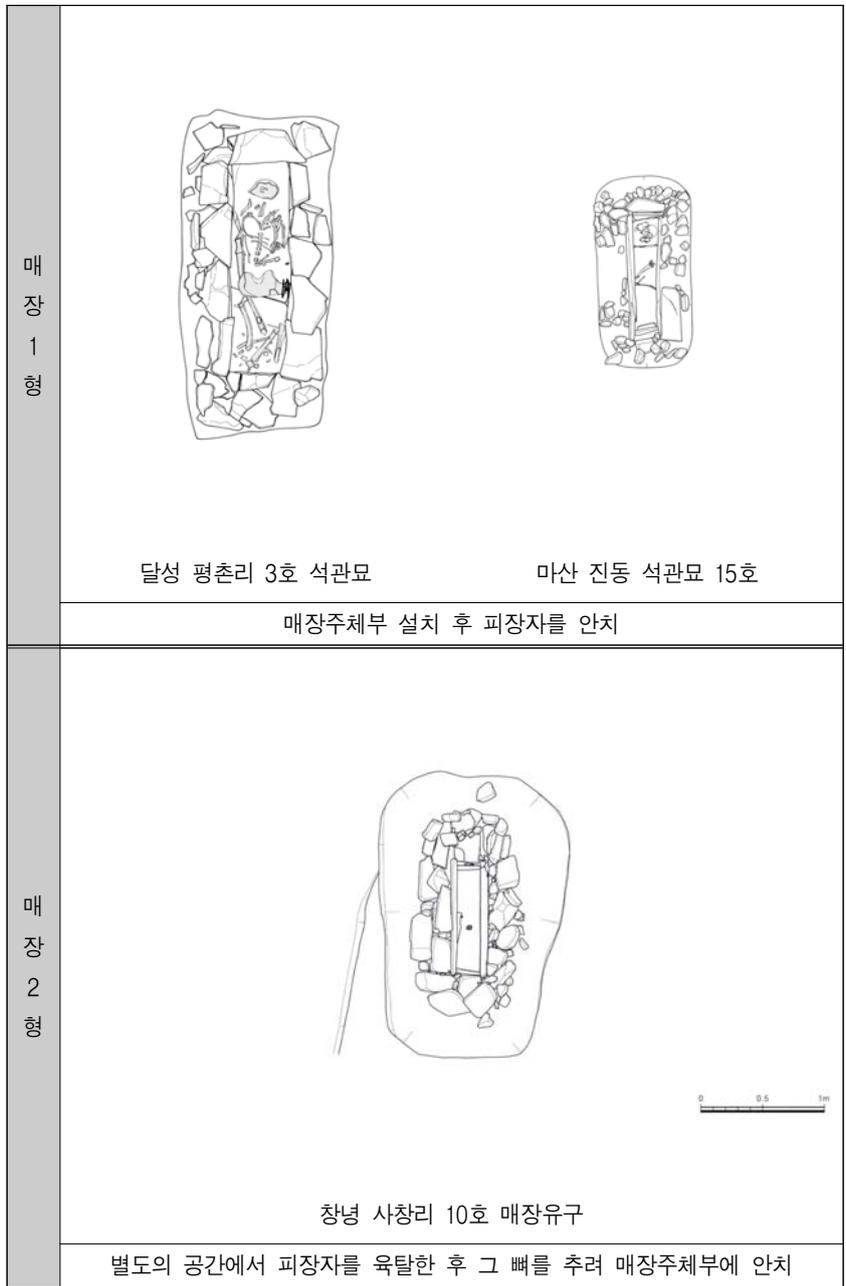
아무튼 ‘소형’의 매장주체부에 대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유구는 대구 진천동유적 3B호 석관이다. 이 석관의 피장자는 자세가 굴장으로 나타나 일차장으로 매장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연령도 성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리고 매장주체부의 장축 길이가 110cm로써 같은 조건을 가진 유구들 중 최소값에 해당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장축 길이 110cm를 기준으로 하여 그 미만을 ‘소형’의 매장주체부로 간주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연구대상 인골은 126개체에 달하지만 잔존상태가 불량한 것들이 많아 이들의 일·이차장을 직접적으로 구분하기 힘들다. 부위동정도 어려운 작은 골편만이 출토된 경우 사실상 일차장과 이차장에 대한 판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차장임을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사례는 다수 존재하는데 반해, 이차장으로 매장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는 점에서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일차장이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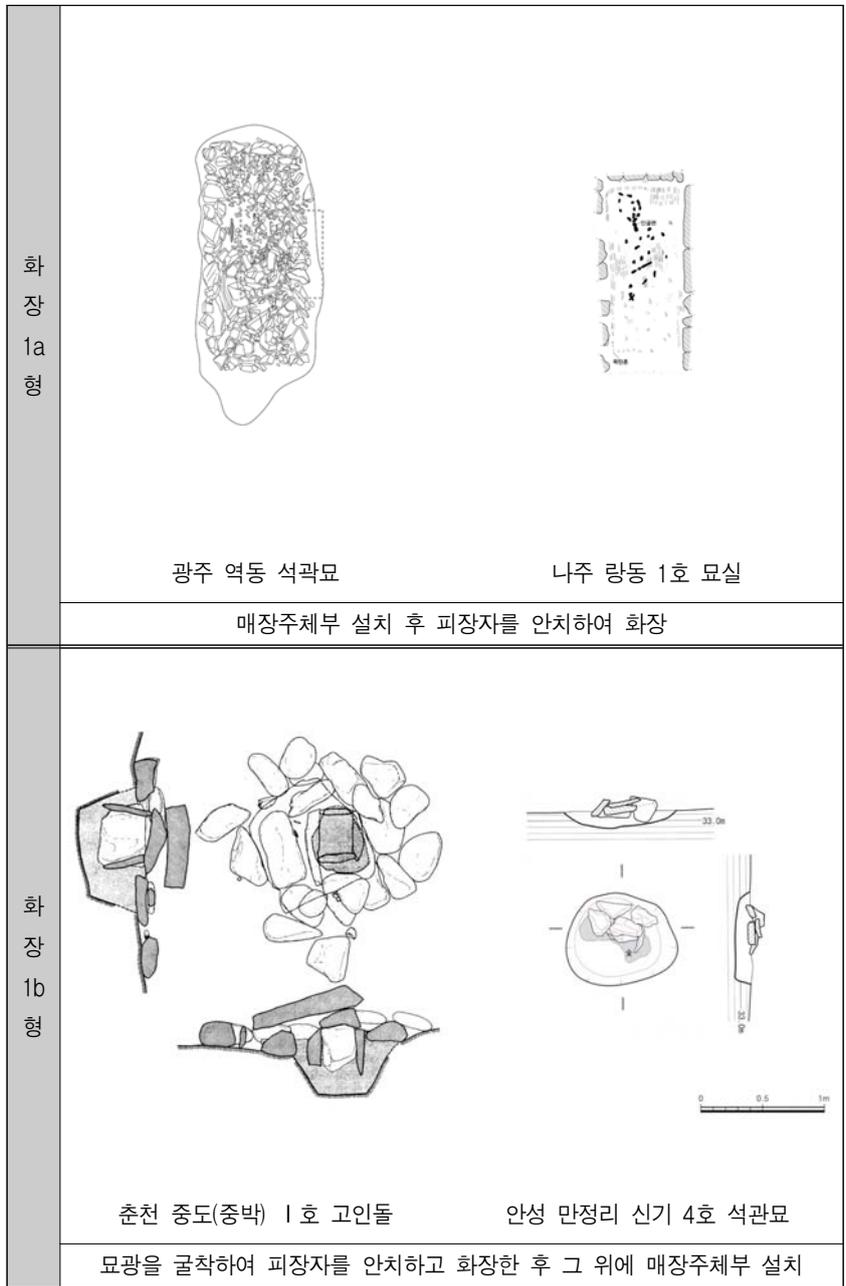
이에 매장절차상 일차장과 이차장의 구분은 전술한 ‘소형’의 매장주체부에 대해 설정한 기준을 통해, 장축 길이가 110cm 이상인 유구에 대해서는 인골의 상태가 다소 불량하더라도 일차장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110cm 미만인 유구 중 유·소아로 연령이 판정된 것 또한 일차장, 성장이 끝난 성인으로 판정된 것은 이차장, 연령의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불명으로 분류한다.

²²⁾ 하지만 이는 개념상의 논리일 뿐이며, 솔직히 필자도 ‘소형’의 매장주체부에서 인골이 출토되지 않았을 경우 유·소아의 매장 및 이차장을 구분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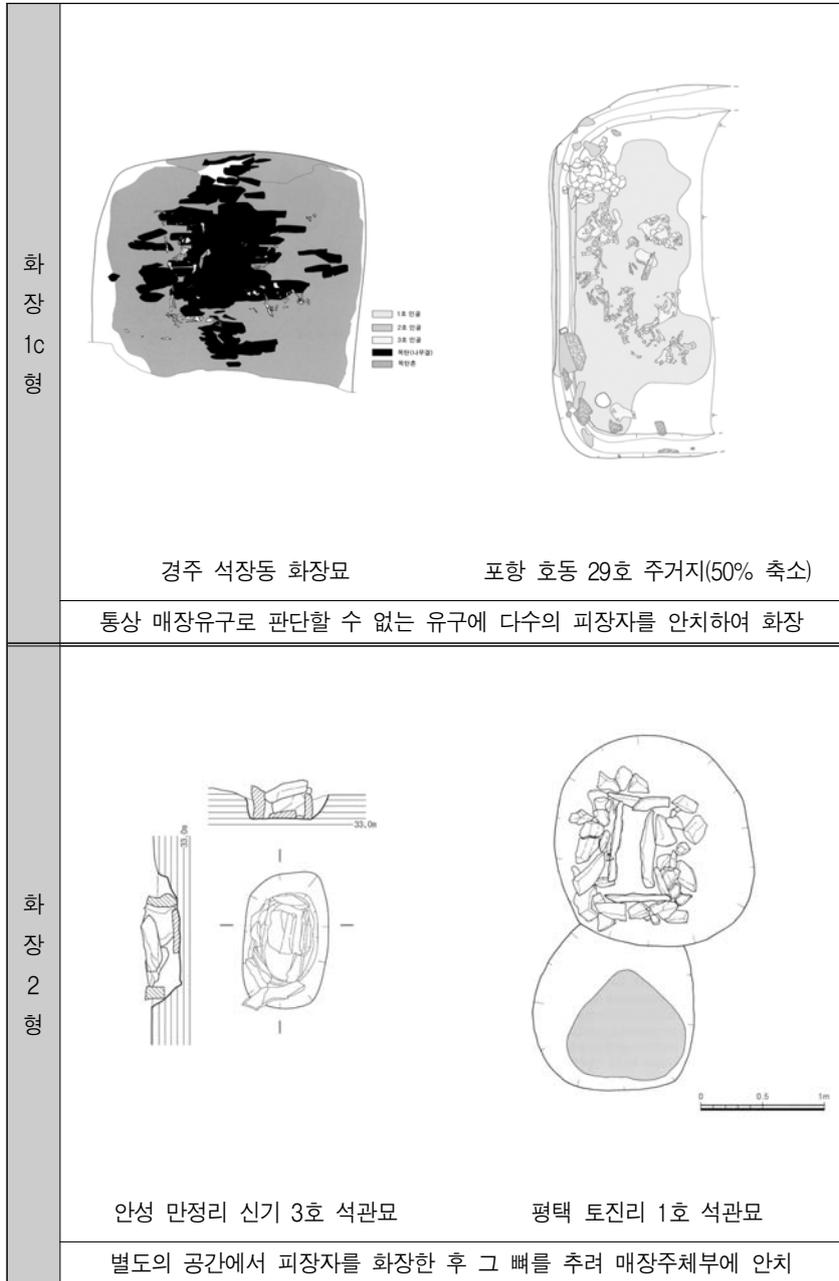
²³⁾ 이영문, 『전남지방 지석묘 사회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지석묘 사회의 장제에 대한 일고-전남 지석묘의 구조와 유물을 중심으로』,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 『한국 지석묘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2002.



도면 2. 매장방법에 따른 각 유형(매장1, 2형)



도면 3. 매장방법에 따른 각 유형(화장1a, 1b형)



도면 4. 매장방법에 따른 각 유형(화장1c, 2형)

이상의 매장방법 및 절차를 통해 분류하면 총 여섯 가지의 유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일차장으로 매장된 것을 ‘매장1형’, 이차장으로 매장된 것을 ‘매장2형’, 매장주체부를 설치한 후 피장자를 안치하여 화장한 것을 ‘화장1a형’, 묘광을 굴착하여 피장자를 안치하고 화장을 행한 뒤 매장주체부를 설치한 것을 ‘화장1b형’, 통상 매장유구로 판단할 수 없는 유구에 다수의 피장자를 안치하여 화장한 것을 ‘화장1c형’, 매장유구와 별도의 공간에서 화장한 후 그 뼈를 추려 안치한 것을 ‘화장2형’으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도면 2~4).

2) 두향

두향 혹은 유구의 장축방향은 기존의 연구자들에 의해 해의 방향이나 물의 흐름 또는 산세 등과 같은 자연경관, 등고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인골을 통해 두향을 판단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개는 부장품(특히 석검의 방향)이나 두광축협외의 유구 형태를 근거로 하였다.²⁴⁾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근거 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골을 통해서 결정된 두향만을 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8개의 방위 구분도 그 기준이 애매하다고 생각되어²⁵⁾ 장축방향의 표현방법²⁶⁾을 이용해 정확한 수치로 방향을 제시하여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즉, 동서남북 네 방향 중 대표 방향을 앞으로 빼내고 가운데 기입되는 각도의 범위는 1~44°로 한정해 두향에 대한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며²⁷⁾ 8개 방위에 대한 기준을 <표 4>와 같이 구분하고자 한다.

24) 김원룡, 『한국의 고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 이영문, 『전남지방 지석묘 사회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지석묘 사회의 장제에 대한 일고-전남 지석묘의 구조와 유물을 중심으로』,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 『한국 지석묘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2002 ; 이윤조, 『한국 고인돌사회와 그 의식-발굴결과를 통한 복원해석의 한 시도-』, 『동방학지』23·2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0.

25) 예를 들어 북쪽과 북동쪽의 구분에 대한 기준을 생각해볼 수 있다.

26) N-??°-S.

27) 통상 발굴보고서에 사용되는 방위는 자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진북과의 편차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현재에 측정된 자북을 당시의 진북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오차가 두향 연구에 있어서 큰 오류를 초래할만큼 크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은 보고된 방향을 그대로 이용한다. 그리고 발굴보고서에 장축방향이 기술되지 않은 것은 도면에서 직접 구하였으며, 정식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거나 도면에서도 수치를 구하기 애매한 것들은 보고된 방향만을 제시하고 그 각도는 공란으로 처리하였다.

표 4. 방위별 기준 범위의 구분

방위	기준 범위
북쪽	N-29°-W ~ N-29°-E
북동쪽	N-30°-E ~ E-30°-N
동쪽	E-29°-N ~ E-29°-S
남동쪽	E-30°-S ~ S-30°-E
남쪽	S-29°-E ~ S-29°-W
남서쪽	S-30°-W ~ W-30°-S
서쪽	W-29°-S ~ W-29°-N
북서쪽	W-30°-N ~ N-30°-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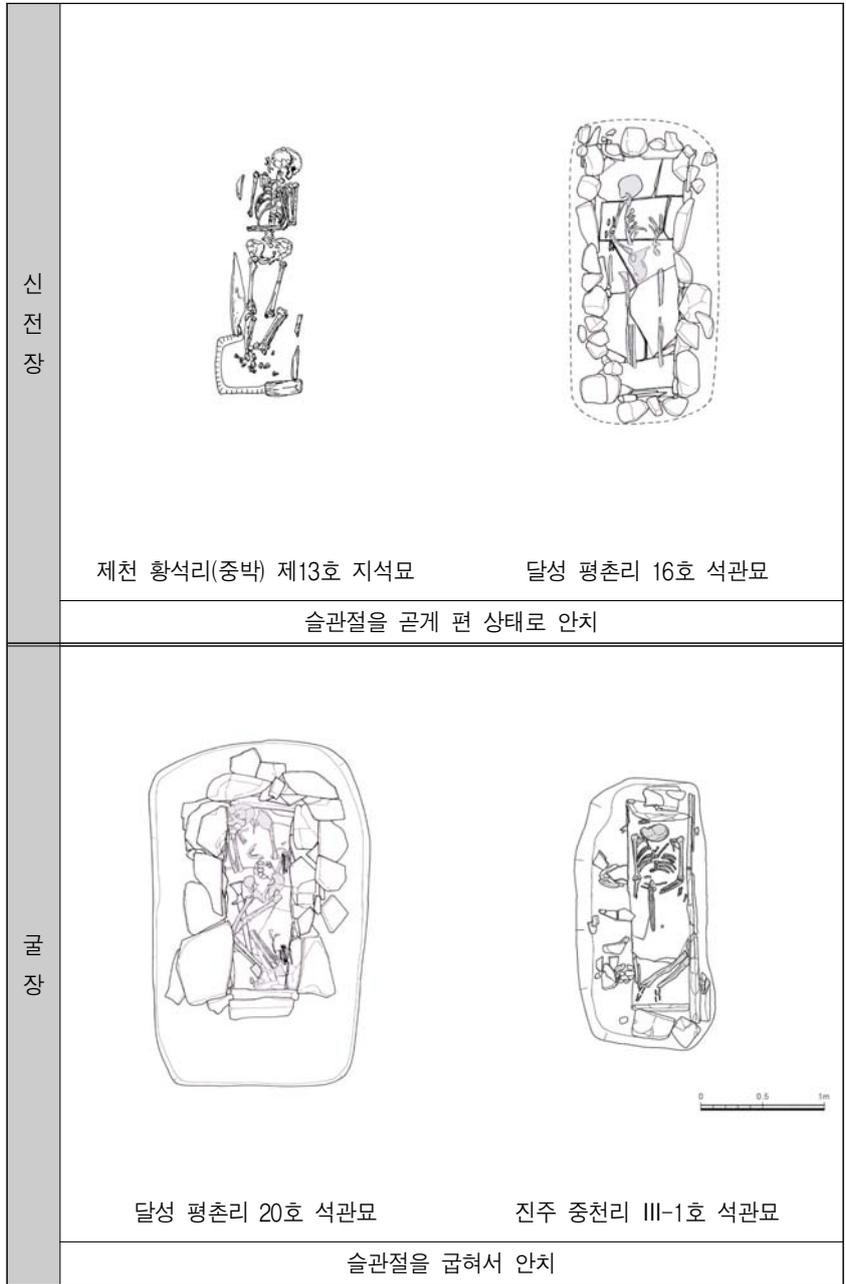
3) 자세

피장자의 자세는 안면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 양와나 좌·우 측와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팔과 다리에서 주관절 또는 슬관절을 펴거나 굽힌 것, 또는 시신을 엮어놓은 것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여러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하지만 본고의 연구대상 인골들을 이처럼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잔존상태에서 한계를 가진 개체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세는 슬관절이 펴지고 굽혀진 것만을 고려하여, 신전장과 굴장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하고자 한다.

즉, 신전장은 슬관절을 곧게 편 상태로 안치한 것이고, 굴장은 반대로 슬관절을 굽혀서 안치한 것이며, 안면부와 주관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도면 5).

2. 지역과 관련한 분석

매장방법 및 절차, 두향, 자세에서 출토 인골을 분류한 결과는 <표 5>로 정리된다. 본 항에서는 이에 대해 앞서 설정한 5개 수계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과 관련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도면 5. 신전장과 굴장

표 5. 출토 인골의 분류

유역	유적명	유구명	매장방법	두향	자세
한강유역	춘천 천전리	C호 적석총	매장1	.	.
	춘천 발산리	5호 지석묘	화장2	.	.
	춘천 신매리	I 군 2호 지석묘	.	.	.
	춘천 중도(중박)	I 호 고인돌	화장1b	동	굴장
	춘천 중도(강원대박)	고인돌	.	.	.
	홍천 외삼포리	석곽묘	매장1	북(N-21°-E)	.
	양평 상자포리(중박)	제3지구 제1호 지석묘	매장1	.	.
	양평 상자포리(이화여대)	4호 지석묘	.	.	.
	양평 양덕리	c21호 고인돌	.	.	.
	광주 역동	석곽묘	화장1a	동(E-17°-N)	.
	안성 만정리 신기	3호 석관묘	화장2	.	.
		4호 석관묘	화장1b	.	.
	평택 토진리	1호 석관묘	화장2	.	.
		1호 적석유구	.	.	.
	정선 아우라지	1호 지석묘	.	.	.
		2호 지석묘	.	.	.
		1호 석곽묘	매장1	.	.
	영월 연당 피난굴	2굴 청동기시대 무덤(1)	.	.	.
2굴 청동기시대 무덤(2)		.	.	.	
2굴 청동기시대 무덤(3)		.	.	.	

구역	유적명	유구명	매장방법	두향	자세
한강유역	제천 황석리(중박)	제13호 지석묘	매장1	동(E-02°-S)	신전장
	제천 황석리 B지구	총6호 고인돌	매장1	동(E-07°-S)	신전장
		총7호 고인돌	매장1	동(E-W)	신전장
		총13호 고인돌	.	.	.
		총17호 고인돌	매장1	동(E-04°-N)	신전장
	제천 양평리 D지구	1호 지석묘	.	.	.
	충주 하천리 D지구	1호 석곽	매장1	남(S-12°-E)	.
		2호 석곽	매장1	남(S-13°-E)	.
	괴산 사창리	다-5지점 지석묘	매장1	.	.
		라-3지점 지석묘	매장1	.	.
금강유역	보은 부수리	1호 석관묘(1)	.	.	.
		1호 석관묘(2)	.	.	.
	진안 삼락리 안자동	2호 지석묘	매장1	.	.
		3호 지석묘	.	.	.
		5-2호 지석묘	매장1	.	.
	진안 삼락리 구곡	A지역 1-1호 지석묘	(화장)1a	.	.
		A지역 1-2호 지석묘	(화장)1a	남(S-11°-E)	.
		A지역 2-2호 지석묘	매장1	남(S-N)	.
		A지역 5-3호 지석묘	(화장)1a	남(S-14°-E)	.
		C지역 2호 지석묘	매장1	.	.
C지역 5호 지석묘	매장1	남(S-N)	.		
섬진강·영산강유역	나주 랑동	1호 묘실	화장1a	남(S-15°-E)	.
	장흥 송정리	48호 지석묘	(화장)1a	서(W-15°-N)	.
	순천 신평리	신평1호 지석묘	매장1	.	.
형산강유역	경주 덕천리	1호 석관묘	화장1a	.	.
	경주 천군동	1-5호 수혈주거지 (1호 인골)	화장1c	동	신전장
		1-5호 수혈주거지 (2호 인골)	화장1c	.	.
	경주 석장동	화장묘(1호 인골)	화장1c	북	신전장
		화장묘(2호 인골)	화장1c	동	신전장
		화장묘(3호 인골)	화장1c	동	신전장
	포항 호동	29호 주거지(1호 인골)	화장1c	북	신전장
29호 주거지(2호 인골)		화장1c	북	신전장	

유역	유적명	유구명	매장방법	두향	자세
낙동강·남강유역	김천 송죽리	제1호 지석묘	매장1	남(S-13°-E)	·
		제4호 지석묘	매장1	남(S-16°-E)	신전장
		제15호 지석묘	매장1	·	·
		제16호 지석묘	·	·	·
	대구 신서동	B-4구역 1호 석관묘	매장1	동(E-08°-N)	·
	대구 매호동 매호동지석묘군 I	석관묘 1호묘	매장1	북(N-20°-E)	·
	대구 동천동	석관묘 1호	매장1	동(E-20°-S)	굴장
		석관묘 2호	·	·	·
	대구 월성동	4호 석관묘	매장1	북(N-29°-E)	·
	대구 진천동	3B호 석관	매장1	북동(N-42°-E)	굴장
	달성 평촌리	1호 석관묘	매장1	남동(E-36°-S)	·
		3호 석관묘	매장1	동(E-18°-S)	굴장
		6호 석관묘	매장1	남서(S-40°-W)	·
		7호 석관묘	매장1	남서(W-37°-S)	·
		11호 석관묘	매장1	북(N-20°-E)	·
		12호 석관묘	매장1	북(N-17°-E)	·
		13호 석관묘	매장1	북(N-17°-E)	신전장
		14호 석관묘	매장1	남동(E-38°-S)	·
		15호 석관묘	매장1	동(E-26°-S)	·
		16호 석관묘	매장1	동(E-26°-S)	신전장
		17호 석관묘	매장1	남동(E-41°-S)	굴장
		19호 석관묘	·	남동(E-41°-S)	·
		20호 석관묘	매장1	남동(E-30°-S)	굴장
		21호 석관묘	매장1	동(E-26°-S)	굴장
		22호 석관묘	매장1	남동(S-42°-E)	신전장
		23호 석관묘	매장1	남동(E-35°-S)	신전장
		25호 석관묘	매장1	동(E-20°-S)	굴장
		27호 석관묘	매장1	남동(E-38°-S)	·
	28호 석관묘	매장1	남동(S-39°-E)	굴장	
	창녕 사창리	9호 매장유구	매장1	북동(E-41°-N)	·
		10호 매장유구	매장2	·	·
		12호 매장유구	매장1	남동(E-43°-S)	·
	산청 강누리	석관묘 1호	매장1	남(S-N)	굴장
진주 대평리 (문화재연구소)	어은 2호 지석묘 동편석관	매장1	남(S-24°-E)	굴장	
	어은 2호 지석묘 남편석관	매장1	·	·	
진주 대평리 어은1지구	4호 석관묘	매장1	남	굴장	
진주 대평리 옥방지구	31호 석관묘	·	동(E-07°-N)	·	
	493호 석관묘	매장1	·	·	

구역	유적명	유구명	매장방법	두향	자세
진주 대평리 옥방4지구	진주 대평리 옥방4지구	제4호 석관묘	매장1	남동(S-36°-E)	굴장
		제5호 석관묘	매장1	동(E-06°-S)	·
		제6호 석관묘	매장1	남동(E-43°-S)	·
		제7호 석관묘	매장1	남동(S-43°-E)	·
		제10호 석관묘	매장1	북서(N-44°-W)	·
		제13호 석관묘	매장1	북동(N-44°-E)	·
		제16호 석관묘	매장1	남동(E-43°-S)	·
	제26호 석관묘	매장1	남동(E-34°-S)	신전장	
	진주 대평리 옥방5지구	A-1호 석관묘	매장1	남동(E-36°-S)	굴장
	진주 대평리 옥방7지구	가-17호 석관묘	매장1	남	신전장
		가-19호 석관묘	·	·	·
		가-20호 석관묘	·	·	·
	사천 본촌리	가1호 석관묘	매장1	남동(S-30°-E)	·
		가2호 석관묘	매장1	남(S-28°-E)	굴장
	진주 가호동	1호 묘	매장1	동(E-03°-N)	신전장
		4호 묘	매장1	·	·
		5호 묘	매장1	남(S-23°-E)	·
		7호 묘	·	동(E-12°-N)	·
		8호 묘	매장1	·	·
		9호 묘	·	남(S-03°-E)	·
		11호 묘	매장1	남(S-18°-E)	·
		15호 묘	·	남(S-19°-E)	·
		17호 묘	·	동(E-28°-S)	·
		18호 묘	·	남(S-28°-E)	·
		19호 묘	매장1	남(S-18°-E)	·
		20호 묘	·	동(E-13°-N)	·
		25호 묘	매장1	남(S-16°-E)	굴장
		27호 묘	매장1	북(N-25°-W)	신전장
	36호 묘	·	·	·	
	진주 중천리	III-1호 석관묘	매장1	북(N-12°-E)	굴장
	마산 진동	묘역식지석묘 K호	매장1	북동(E-33°-N)	·
		석관묘 15호	매장1	남(S-15°-E)	굴장
	창원 덕천리	11호 묘	매장1	북(N-05°-W)	굴장
		16호 묘	매장1	동(E-01°-S)	굴장
		17호 묘	·	·	·
	김해 내동	제3호 큰돌무덤	매장1	북(N-25°-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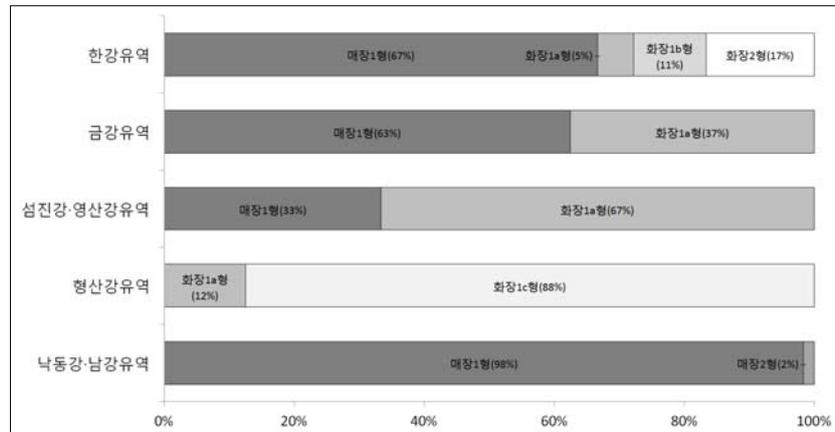
1) 매장방법 및 절차

매장방법 및 절차에서는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이는 총 97개 체 인골의 분석을 통해 가능하였다. 이것을 수계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표 6, 7>과 같다.

표 6. 매장방법에 따른 각 유형에 대한 유역별 개체수

유역 \ 유형	매장1형	매장2형	화장1a형	화장1b형	화장1c형	화장2형
한강유역	12		1	2		3
금강유역	5		3			
섬진강·영산강유역	1		2			
형산강유역			1		7	
낙동강·남강유역	59	1				
합계	77	1	7	2	7	3

표 7. 매장방법에 따른 각 유형에 대한 유역별 비율



한강유역에서는 매장1형, 화장1a형, 화장1b형, 화장2형 등 다양한 유형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매장1형이 12개체(약 67%)로 가장 많이 나타나며, 화장1a형(1개체, 약 5%), 화장1b형(2개체, 약 11%), 화장2형(3개체, 약 17%) 등이 일부 혼재한다.

금강유역에서는 매장1형과 화장1a형만이 확인된다. 매장1형(5개체, 약 63%)이 화장1a형(3개체, 약 37%)보다 조금 우세한 편이다. 하지만 총 개체수가 많지 않고, 무엇보다 진안 삼락리유적 한 곳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해당 유역을

대표하는 결과로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섬진강·영산강유역에서는 금강유역과 마찬가지로 매장1형과 화장1a형만이 확인된다. 매장1형(1개체, 약 33%)에 비해서 화장1a형(2개체, 약 67%)이 조금 우세한 편이다. 유적은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하지만, 확인된 인골이 3개체에 불과해 역시 해석에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

형산강유역에서는 매장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며, 화장1a형과 화장1c형만이 확인된다. 화장1a형은 1개체(약 1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화장1c형(7개체, 약 88%)이다. 수계별로 구분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화장1c형이 확인되며 그 비율 또한 상당히 높다.

낙동강·남강유역에서는 화장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며 매장1형과 매장2형만이 확인된다. 1개체의 매장2형(약 2%)을 제외한 나머지 59개체 모두가 매장1형(약 98%)이다. 압도적으로 많은 매장1형이 나타나는 가운데 전체 유역에서 유일하게 매장2형이 확인된다.

이들 모두를 종합하여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매장방법에서 매장이 78개체(약 80.5%), 화장이 19개체(약 19.5%)로 전자의 수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청동기시대에는 매장이 일반적이었으며, 일부 화장이 행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매장 또는 화장 가운데 어느 한 쪽 만이 확인되는 낙동강·남강유역과 형산강유역을 제외하면, 매장과 화장은 각각 18개체(약 62%)와 11개체(약 38%)가 된다. 즉, 매장과 화장이 함께 나타나는 유역만을 두고 본다면 화장의 비중이 현저히 낮다고 할 수는 없으며, 매장이 다소 많기는 하지만 화장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한강, 금강, 섬진강·영산강유역에서는 매장이 중심이나 화장 또한 그에 못지않게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3개 유역에서도 서로 상이한 요소가 간취된다. 즉, 한강유역의 경우 화장에서 1c형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유형이 모두 나타나는 반면, 금강과 섬진강·영산강유역에서는 화장 중 1a형만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강유역은 조금 더 수계를 세분하여 검토해 볼 수도 있다.²⁸⁾ 북한강유역의 춘천 천전리유적과 홍천 외삼포리유적에서 확인된 매장1형 각 1개체씩을 제외하면 나머지 매장1형은 모두 남한강유역에서만 확인된다. 또한 남한강유역에서는 화장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한강유역 내에서도 수계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매장방법 및 절차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²⁸⁾ 한강 분류 및 경기남부지역에 위치하는 유적들의 경우 여기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형산강유역의 경우는 화장된 인골만 8개체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일반적인 매장유구에서 출토된 화장1a형에 해당하는 것은 경주 덕천리유적의 1개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화장1c형이므로, 해당 유역에서 매장은 행해지지 않고 화장만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화장1c형과 같은 특수 사례가 이 유역에서 유행한다는 점은 매장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타 유역과 구분되어 강한 지역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낙동강·남강유역의 경우는 1개체의 매장2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매장1형에 해당한다. 다른 유역과 비교해보면 유일하게 화장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매장2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 유역은 매장방법에서 일반적인 매장만 행해지며, 그 가운데에는 절차상 이차장도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두향

두향은 모두 8개의 방위로 나누어 보았으며 이는 총 83개체의 인골에 적용되었다. 각 유역별로 구체적인 수량을 정리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두향의 각 방위에 대한 유역별 개체수

유역 \ 방위	북	북동	동	남동	남	남서	서	북서
한강유역	1		6		2			
금강유역					4			
섬진강·영산강유역					1		1	
형산강유역	3		3					
낙동강·남강유역	9	4	14	17	15	2		1
합계	13	4	23	17	22	2	1	1

한강유역의 경우는 북쪽 1개체(약 11%), 동쪽 6개체(약 67%), 남쪽 2개체(약 22%)로 3개 방위가 고루 나타나는 가운데 동쪽이 다소 많은 양상을 보인다. 금강유역의 경우는 남쪽만 4개체가 나타나고, 섬진강·영산강유역의 경우는 남쪽과 서쪽이 각각 1개체씩, 형산강유역의 경우는 북쪽과 동쪽이 각각 3개체씩 확인되었다.

가장 많은 두향이 확인된 유역은 낙동강·남강유역인데, 62개체에서 북쪽 9개체(약 15%), 북동쪽 4개체(약 6%), 동쪽 14개체(약 23%), 남동쪽 17개체(약 27%), 남쪽 15개체(약 24%), 남서쪽 2개체(약 3%), 북서쪽 1개체(약 2%)가 확인되어 서쪽을 제외한 모든 방위가 존재하는 양상이다. 그 분포는 주로 동쪽, 남

동쪽, 남쪽에 집중되어있고(약 74%), 북쪽도 적지 않은 수를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8개 방위 가운데 7개 방위가 확인된 낙동강·남강유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유역에서는 각 유역마다 1~3개 정도의 방위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각 유역마다 선호하는 두향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두향이 확인된 낙동강·남강유역의 경우를 보면 서쪽을 제외한 전 방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4개 유역의 방위가 일부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은 확인된 두향의 수가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어, 유역별로 특별히 선호하는 방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유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두고 볼 때는 두향의 선호 방위가 주로 동쪽(23개체, 약 27.7%), 남쪽(22개체, 약 26.5%), 남동쪽(17개체, 약 20.5%)의 순으로 확인되며, 북쪽(13개체, 약 15.7%)도 약간의 비중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어, 전체적으로 서쪽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서쪽과 함께 남서쪽, 북서쪽을 모두 합해도 그 수가 4개체(약 4.8%)에 불과하므로, 두향에 있어서 낙조의 방향이라 할 수 있는 포괄적 서향을 기피하는 공통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섬진강·영산강유역에 해당하는 2개체의 두향이 각각 남쪽과 서쪽을 보이고 있어 이 유역에서는 예외적일 가능성도 있지만, 현 시점의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3) 자세

자세에 대해서는 신전장과 굴장으로 나누어 본 결과, 총 39개체의 인골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을 수계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수량을 정리해보면 <표 9>와 같다.

표 9. 자세에 대한 유역별 개체수

유역	자세	
	신전장	굴장
한강유역	4	1
금강유역		
섬진강·영산강유역		
형산강유역	6	
낙동강·남강유역	9	19
합계	19	20

한강유역에서는 두 자세가 모두 나타나는데, 신전장 4개체(80%)와 굴장 1개체(20%)로 전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금강유역과 섬진강·영산강유역에서는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개체가 전무하며, 형산강유역은 6개체에서 신전장만이 나타난다. 낙동강·남강유역에서는 한강유역과 마찬가지로 두 자세가 모두 나타나지만, 그 비율은 신전장 9개체(약 32%)와 굴장 19개체(약 68%)로 후자가 높은 편이다.

이처럼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 피장자의 자세가 지역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자료의 여건상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세가 확인되는 39개체의 인골 중에서 5개체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형산강유역과 낙동강·남강유역을 아우르는 영남지역에만 유독 편중되어 있으며, 금강유역과 섬진강·영산강유역에서는 확인되는 것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굳이 지역성에만 한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연령이나 성별같은 피장자의 개별적인 성격과 관련하여 분석을 시도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청동기시대 장제의 지역성

지금까지 매장방법 및 절차, 두향, 자세 등을 통해 출토인골을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매장방법 및 절차와 두향에서는 수계별로 구분한 지역과 관련하여 공통적이거나 상이한 부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자세에서는 자료의 여건상 지역성을 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여기서는 먼저 한국의 청동기시대 장제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양상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어서 검토대상 대부분의 인골에 해당하는 청동기시대 후기에 초점을 맞춰, 송국리문화권과 그 외 지역에서 나타나는 장제의 상이한 모습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양자 각각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인 지역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제의 공통적인 양상

앞서 매장방법의 분석을 통해 청동기시대의 인골에서는 매장이 약 80.5%, 화장이 약 19.5%의 비율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매장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고 해서 매장이 일반적이고 화장은 특수한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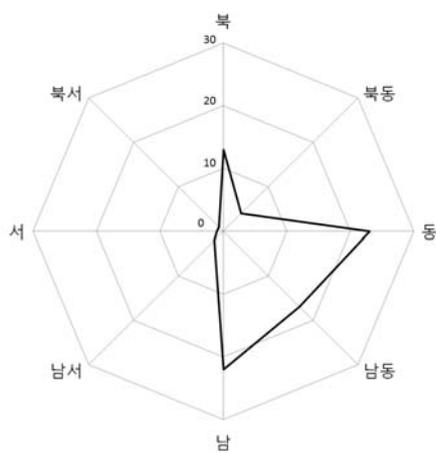
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수계를 기준으로 한 지역 구분에서 매장이나 화장 어느 한 쪽만 나타나는 유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형산강유역은 화장만이 나타나고, 낙동강·남강유역은 매장만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형산강유역은 출토된 8개체 가운데 일반적인 매장유구에서 확인된 것이 1개체(화장1a형)뿐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근거로 해당 유역에서 매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낙동강·남강유역은 총 60개체의 인골에서 화장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골과 상관없이 정황상 화장의 가능성을 보이는 것도 확인된 예가 있기 때문에²⁹⁾, 화장의 비율이 매장에 비해 극소수일지라도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컨대 매장이나 화장의 어느 한 가지만이 확인된 유역이라도 오직 그 한 가지의 방법만이 행해졌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청동기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매장과 화장이 함께 성행하였으며, 다만 지역에 따라 그 선호도에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한편 두향의 분석에서는 수계별 유역에 따라 차별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전체적으로 해가 지는 서쪽의 두향이 극히 드문 편인데(표 10),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자연 지세 등에서 두향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³⁰⁾과 상반된 결과이다.

표 10. 두향의 각 방위별 개체수



하지만 이같은 결과로써 두향의 결정에 있어서 해의 방향만 고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피장자를 안치함에 있어서 두향을 결정하기 전에 주변의 자연 지세, 입지, 무덤간 상대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무덤의 장

29) 진주 가호동유적 6호 묘의 경우 매장주체부에 전체적으로 탄화된 흔적이 남아있어 화장으로 추정된다. 이를 화장으로 가정한다면 매장주체부의 크기상 화장1a형에 해당한다.

동서문화연구원, 『진주 가호동유적』, 2011.

30) 이영문, 『전남지방 지식묘 사회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지석묘 사회의 장제에 대한 일고-전남 지식묘의 구조와 유물을 중심으로』,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 『한국 지식묘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2002 ; 이용조, 『한국 고인돌사회와 그 의식-발굴결과를 통한 복원해석의 한 시도-』, 『동방학지』23·2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0.

축방향을 먼저 결정하고, 그것이 동-서 방향일 경우에 대부분 해가 지는쪽인 서쪽을 피하고 동쪽으로 머리를 두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결국 기존의 연구자들이 주목해 온 자연 지세뿐만 아니라 해의 방향 역시도 두향의 결정에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한국의 청동기시대에 나타나는 장제의 공통적인 양상에 대해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매장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장과 화장이 성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장자의 두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자연 지세와 입지, 무덤간 상대적 위치 등을 비롯하여 해의 방향 또한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당시에는 해가 지는 방향을 기피하는 관념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송국리문화권과 그 외 지역간 장제의 상이성

매장방법 및 절차에서 각 유형을 수계별로 분석해본 결과, 어느정도 지역적으로 구분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매장 1형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유형만을 한정하여 각 유형의 유무와 시기를 고려해보면 지역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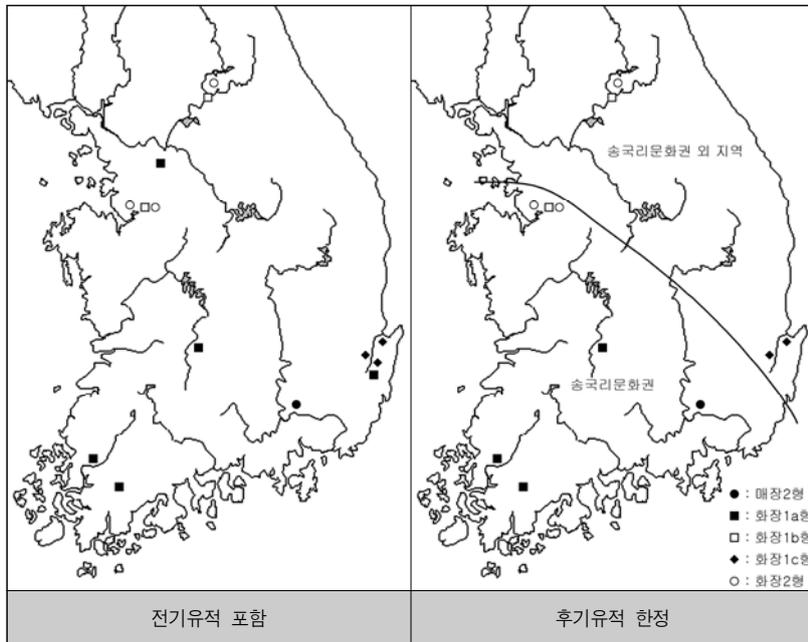
화장1a형은 낙동강·남강유역을 제외한 전 유역에서 나타나지만, 화장1b형과 화장2형은 한강유역에서만 나타나고 있고, 화장1c형은 형산강유역에서만 나타난다. 그리고 매장2형은 낙동강·남강유역에서만 확인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송국리문화의 주거지 분포권³¹⁾과 관련시켜 생각해보면, 송국리문화권에서는 화장1a형과 매장2형이 나타나고, 그 외 지역에서는 매장2형을 제외한 화장 전 유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여기에 시기 문제를 대입해보면, 송국리문화권 밖에 위치하는 화장 1a형(광주 역동유적 1개체, 경주 덕천리유적 1개체) 모두가 전기에 해당하는 점이 주목된다. 즉, 송국리문화권과 관련하여 후기에 초점을 맞추면 <표 11>과 같이 지역별 유형을 정리할 수 있으며, 그 분포 현황은 <도면 6>과 같다.

31) 김승욱, 『송국리문화의 지역권 설정과 확산과정』, 『호남고고학보』24, 호남고고학회, 2006.

표 11. 송국리문화권과 그 외 지역간 유형의 비교

지역	매장방법의 공정	소형 매장주체부에 행한 이차장의 방법	특수한 매장방법의 유무
송국리문화권	화장1a형 매장주체부 설치 후 피장자를 안치하여 화장	매장2형 별도의 공간에서 피장자를 육탈한 후 그 뼈를 추려 매장주체부에 안치	확인되지 않음
송국리문화권 외 지역	화장1b형 모광을 굴착하여 피장자를 안치하고 화장한 후 그 위에 매장주체부 설치	화장2형 별도의 공간에서 피장자를 화장한 후 그 뼈를 추려 매장주체부에 안치	화장1c형 주거지나 넓은 방향의 수혈 등 매장유구로 판단할 수 없는 유구에 다수의 피장자를 안치하여 화장



도면 6. 매장1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분포 현황

이러한 양상은 송국리문화권과 그 외 지역이 화장이면서 일차장인 경우에는 각각 화장1a형과 화장1b형으로 대비되어 매장방법의 공정상 서로 상이하다. 또 소형 매장주체부에 행해진 이차장인 경우에도 각각 매장2형과 화장2형으로 대비되어 매장방법을 달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화장1c형과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가 송국리문화권에는 나타나지 않고, 그 밖의 지역에만 확인되는 점에서도 양 지역의 차이점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안성 만정리 신기유적과 평택 토진리유적의 경우 송국리 문화권에 포함되는 경기남부지역에 위치하고, 묘제도 전형적인 송국리형 석관묘이지만 화장1b형과 화장2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는 경기남부지역이 송국리 유형뿐만 아니라 역삼동유형도 함께 나타난다는 점³²⁾에서 매장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혼재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크게 송국리문화권과 그 외 지역으로 양분하여 지역적 장제의 상이성을 확인하였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양 지역 내에서 세부적으로 구분되는 요소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송국리문화권을 금강 및 섬진강·영산강유역과 낙동강·남강유역의 두 지역으로 세분하여 보면, 전자에서는 매장2형이 확인된 사례가 없지만 후자에서는 창녕 사창리유적에서 1개체가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화장1a형의 경우 전자에서는 확인되었으나 후자는 확인된 예가 없고,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화장1a형으로 추정되는 것만이 확인될 뿐이다.

이를 정리하면 양 지역에서 매장1형에 대해 화장1a형이 나타나는 비율은 금강 및 섬진강·영산강유역에서는 6 : 5로 어느정도 비슷하지만, 낙동강·남강유역은 극히 일부만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매장2형과 관련한 이차장에 대해서는 금강 및 섬진강·영산강유역의 경우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낙동강·남강유역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송국리문화권 외 지역은 우선 한강유역을 북한강유역과 남한강유역으로 세분하여 볼 수 있다. 북한강유역은 매장과 화장의 비율이 1 : 2로 화장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남한강유역은 화장이 확인되지 않고 매장1형만이 출토되었다. 다만 남한강 하류에 위치하는 양평 상자포리유적(이화여자대학교)에서 출토된 인골이 목탄과 혼재된 양상으로 확인되어, 이 유역에 화장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강유역과 남한강유역은 매장과 화장의 비율로만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북한강유역은 매장보다 화장이 높은 비율로 행해졌고, 남한강유역은 그 반대인 화장보다 매장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형산강유역은 앞서 살펴본 북한강유역이나 남한강유역과는 또다른 양상이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매장유구에서 출토된 것이 아닌 특수한 사례의 화장1c형만이 확인되었다. 이 유역은 일반적인 매장유구에서 나타나는 매장 화장의 각 유형이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의 비교가 쉽지

32) 김한식, 『경기지역 역삼동유형의 정립과정』, 『고고학』5-1, 중부고고학회, 2006.

않다. 하지만 화장1c형이 이 유역에서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타 지역과 구분되는 특수한 장제³³⁾가 존재했을수도 있다는 점을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송국리문화권과 그 외 지역에 대해 세부적으로 금강 및 섬진강·영산강유역, 낙동강·남강유역, 북한강유역, 남한강유역, 형산강유역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매장방법에 대한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이는 <표 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2. 송국리문화권과 그 외 지역 내부의 매장방법 비교

송국리문화권	금강 및 섬진강·영산강유역		낙동강·남강유역
	매장(6개체)과 화장(5개체)의 비율이 비슷함		매장(60개체)만이 확인되며 화장은 추정되는 것만 일부 존재
송국리문화권 외 지역	북한강유역	남한강유역	형산강유역
	매장(1개체)에 비해 화장(2개체)의 비율이 다소 높음	매장(7개체)만이 확인되며 화장은 추정되는 것만 일부 존재	화장1c형이 확인됨

V. 맺음말

지금까지 청동기시대의 장제에 관한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소수의 인골만을 근거로 하였거나 아예 인골의 검토를 무시한 채 당시의 장제에 대해 단편적이고 부수적으로 접근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본고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유구에서 출토된 126개체의 인골을 통해 당시의 장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해 먼저 인골이 출토된 유적들을 수계별로 구분한 유역에 따라 나눈 후 각각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시기를 검토하였다. 그 다음은 연구대상 인골들에 대해 매장방법 및 절차, 두향, 자세 등 세 가지 요소를 통한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매장방법 및 절차에서는 매장1형, 매장2형, 화장1a형, 화장1b형, 화장1c

³³⁾ 그 예로 가옥장과 관련한 연구가 있다.

유병록, 『수혈건물 폐기행위 연구 1-가옥장-』,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창설20주년 기념논문집』,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창설20주년 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10 ; 이수홍, 『검단리유형의 무덤에 대한 연구』, 『고고광장』8, 부산고고학연구회, 2011 ;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형, 화장2형 등 모두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또한 두향은 8개의 방위로 구분하였으며, 자세는 신전장과 굴장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렇게 분류한 각 요소들에 대해 유역별로 분석을 시도한 결과, 특히 매장방법 및 절차와 두향에서 각 유역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과 서로 구분되는 차별적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청동기시대의 장제에 대해 지역성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았다.

우선 공통적인 양상으로는 매장방법에서 매장과 화장이 성행하였고, 두향과 관련하여 해가 지는 서쪽 방향을 기피하는 관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청동기시대 후기에 한정하여 송국리문화권과 그 외 지역으로 크게 나누어 본 결과, 매장방법 및 절차상의 유형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화장1a형 : 화장1b형과 매장2형 : 화장2형으로 각각 대비되어, 화장 중 일차장에 있어서는 매장방법의 공정상 지역간 상이한 양상이 확인되었고, 이차장에 있어서는 일반 매장과 화장으로 구분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처럼 양분한 지역 구분을 좀 더 세분하여 그 내부에서도 서로 상이한 양상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들이 나타나는 의미에 대해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서는 인골이 출토되지 않은 매장유구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추후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 투고일 2017년 7월 25일 | 심사완료일 2017년 8월 22일 | 게재확정일 2017년 8월 30일 ■

참고문헌

- 강원대학교박물관, 『중도 고인돌 발굴조사보고』, 1984.
- 강원문화재연구소, 『강원지역 지석묘군 발굴조사 보고서』, 2004.
- _____, 『홍천 외삼포리 유적』, 2008.
- _____, 『정선 아우라지 유적』, 2011.
- 강인구, 『달성 진천동의 지석묘-복식석관과 굴신장의 신례-』, 『한국사연구』28, 한국사연구회, 1980.
- 경기문화재연구원, 『안성 만정리 신기유적』, 2009.
- 경남고고학연구소, 『진주 대평 옥방 1·9지구 무문시대 집락』, 2002.
- 경남대학교박물관, 『덕천리』, 2013.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마산 진동 유적 I』, 2008.
- 경상대학교박물관, 『사천 본촌리유적』, 2011.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포항 호동유적II』, 2008.
- _____, 『달성 평촌리·예현리 유적』, 2010.
- 계림문화재연구원, 『경주지역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II』, 2012.
-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김천송죽리유적II』, 2007.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사전』, 2001.
- 국립전주박물관,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III』, 2001.
-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지석묘연구』, 1967.
- _____, 『양평군 상자포리 지석묘(석관묘)발굴보고』, 『팔당·소양댐수몰 지구유적발굴 종합조사보고』,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 _____, 『중도』, 1983.
- 기전문화재연구원, 『평택 토진리 유적』, 2006.
- 김규호, 『강원지역의 고인돌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김동규, 『청동기시대 영남지역 집석유구의 기능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_____, 『청동기시대 서부경남지역의 석관 연구』, 『문물연구』26, 동아시아문화연구학술재단, 2014.
- 김동숙, 『원시와 고대의 장송의례 연구』, 『무덤연구의 새로운 시각』, 한국고고학회, 2008.

- 김승옥, 『금강유역 송국리형 묘제의 연구-석관묘·석개토광묘·옹관묘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45, 한국고고학회, 2001.
- _____, 『송국리문화의 지역권 설정과 확산과정』, 『호남고고학보』24, 호남고고학회, 2006.
- 김원룡, 『한국의 고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 김재현, 『인골로 본 남강 대평사람들』, 『청동기시대의 대평·대평인』, 국립진주박물관, 2002.
- _____, 『부산·경남지역 고대 장송문화의 정체성과 접변양상』, 『석당논총』37,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6.
- 김한식, 『경기지역 역삼동유형의 정립과정』, 『고고학』5-1, 중부고고학회, 2006.
- 동서문물연구원, 『진주 가호동유적』, 2011.
- 동아대학교박물관, 『남강유역문화유적발굴도록』, 1999.
- _____, 『김해 흥동 유적』, 2003.
- 동아대학교박물관, 『진주 대평리 옥방4지구 선사유적 I』, 2008.
- 문화재연구소, 『진양 대평리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994.
- 서울대학교, 『제원 양평리D지구 유적발굴조사 보고』,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발굴조사종합보고서 고고·고분분야(I)』, 충북대학교박물관, 1984.
- 선문대학교, 『진주 대평리 옥방 5지구 선사유적』, 2001.
- 성림문화재연구원, 『경주 천군동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2010.
- 세종문화재연구원, 『대구 월성동 1150-1번지 일원 한천중학교 예정부지 내 유적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4.
- 손준호, 『청동기시대 마제석기 연구』, 서경문화사, 2006.
- 신석원, 『인골로 본 청동기시대 장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연세대학교, 『양평군 양덕리지역 유적발굴보고』, 『팔당·소양댐수몰지구유적발굴 종합조사보고』,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 연세대학교박물관, 『영월 연당 피난굴(쌍굴) 유적』, 2009.
- _____, 『시지의 문화유적 I』, 1999.
- 영남문화재연구원, 『대구 동천동취락유적』, 2002.
- _____, 『경주 덕천리유적 I』, 2008.
- 우리문화재연구원, 『진주 중천리 유적』, 2009a.
- _____, 『창녕 사창리 유적』, 2009b.

- 우장문, 『경기지역의 고인돌 문화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유병록, 『수혈건물 폐기행위 연구 1-가옥장-』,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창설20주년 기념논문집』,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창설20주년 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10.
- 유태용, 『인골분석을 통한 지석묘사회의 계층성 연구』, 『경기사학』7, 경기사학회, 2003.
- 이상길, 『진주 대평 어은1지구 발굴조사 개요』, 『남강선사문화세미나요지』, 1999.
- 이수홍, 『진주 대평 옥방 1지구 유적』, 『남강선사문화세미나요지』, 1999.
- _____, 『검단리유형의 무덤에 대한 연구』, 『고고광장』8, 부산고고학연구회, 2011.
- _____,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영문, 『전남지방 지석묘 사회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_____, 『지석묘 사회의 장제에 대한 일고-전남 지석묘의 구조와 유물을 중심으로』,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 _____, 『한국 지석묘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2002.
- _____, 『호남지역 지석묘의 형식과 구조에 대한 몇가지 문제-가매장시설의 기능과 관련하여』, 『한국청동기학보』8, 한국청동기학회, 2011.
- 이용조, 『한국 고인돌사회와 그 의식-발굴결과를 통한 복원해석의 한 시도-』, 『동방학지』23·2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0.
- 이화여자대학교, 『양평군 상자포리 지석묘 발굴보고』, 『팔당·소양댐수몰지구유적발굴 종합조사보고』,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 임세권, 『한 반도 고인들의 종합적 검토』, 『백산학보』20, 백산학회, 1976.
- 전남대학교박물관, 『주암댐 수몰지역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I)』, 1987.
- 전남문화재연구원, 『나주 랑동유적』, 2006.
- 정의도, 『진주 대평리 옥방7지구 선사유적』, 『남강선사문화세미나요지』, 1999.
- 중앙문화재연구원, 『보은 부수리고분군』, 2004.
- 지건길, 『지석묘사회의 복원에 관한 일고찰-축조기술과 장제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13·14, 이화여자대학교 사학연구소, 1983.
- 충북대학교, 『제원 황석리B지구 유적발굴조사 보고』,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발굴조사종합보고서 고고·고분분야(I)』, 충북대학교박물관, 1984.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괴산 학생중앙군사학교 부지 내 유적』, 2012.

- 平郡達哉, 『무덤자료로 본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사회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하대룡, 『인골 분석을 통한 장례 방식의 검토-불교식 화장 이전의 선사·고대 화장 문화의 특성-』, 『농업의 고고학』, 한국고고학회, 2012.
- 한겨레문화재연구원, 『산청 읍청정 부지 및 주변부지(강누지구) 유적』, 2012.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대구 신서동 유적Ⅱ』, 2012.
- 한림대학교박물관, 『신매리 지석묘 주거지 발굴보고서』, 1986.
- 한양대학교, 『중원 하천리D지구 유적발굴조사 보고』,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발굴조사종합보고서 고고·고분분야(Ⅱ)』, 충북대학교박물관, 1984.
- 한얼문화유산연구원, 『광주 역동유적』, 2012.
- 호남문화재연구원, 『장흥 갈두유적Ⅱ』, 2006.

Abstract

A Study on the Locality of the Funeral Institution in
the Bronze Age
- Focused on the Human Bones -

Shin, Seok-Won

There were many cases that the existing researches on the funeral institution in bronze age approached fragmentarily and subsidiarily without which most of them properly examined the human remains. To overcome this problem, this study attempted the approach to the funeral institution of bronze age in South Korea by having the research subjects as 126 pieces of human remains that were excavated from the remains of bronze age.

Among all elements of the funeral institution, first of all, it classified a burial method & procedure, head direction and a posture available for being confirmed in a human bone of a buried person. As a result, all of 6 types could be divided from a burial method & procedure. And the head direction was divided into 8 bearings. A posture was classified into Shinjeon-jang(伸展葬) and Gul-jang(屈葬).

As for each of the sorted elements, a burial method & procedure, head direction and a posture were analyzed depending on the basin that was classified by water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ould confirm the aspect, which is shown in common in the former, and the differential aspect, which is divided by region. Through these analytical results, it figured out the social aspect of bronze age in relation to locality.

First of all, in the locality of the funeral institution, a burial method was prevailed burial and cremation in common. With regard to head direction, an idea of avoiding west of the sun declining was confirmed

to have existed. Also, the limitation to the latter part of bronze age led to what Songguk-ri culture sphere and other areas are indicated with the mutually different image in a burial method & procedural type. Even in the inside of each region, a different aspect was identified according to the basin that was classified by water system.

Key Words : Bronze Age, The Funeral Institution, Locality, Human Bones, Burial Method, Burial Procedure, Head Direction, Posture

